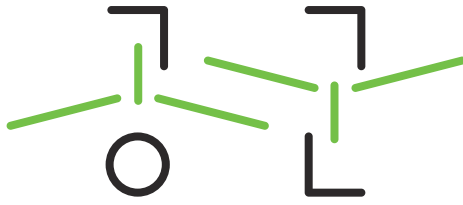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1
05
5 1 5

<http://afine.co.kr>



Contents

04	기획특집	공군가족, 윤가네를 소개합니다.
08	기획특집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12	인포그래픽	KF-21 인포그래픽
14	특별 인터뷰	국산항공기로 조종사 양성부터 영공방위까지 (방위사업청 정광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18	ROKAF	모두와 함께하는 인권교육
22	특별기고	공군 조종사들은 매일 블루베리를 챙겨먹나요 (한국일보 정승임 기자)
24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15화 김수영(金洙暎) 시인 편
30	내 옆의 공군인	(주)헤럴드 김보현 부사장
34	우리 부대는	제38전투비행전대
38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공군가족, 윤가네(김동범 중사)
표 지(뒤) 공군과 함께하는 어린이날(자토 작가)

발 행 일 자 2021년 5월 1일(통권 제515호)
발 행 대한민국 공군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최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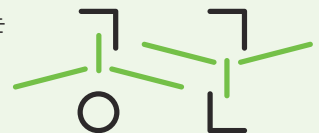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21040140)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 44 한 달, 한 권 나의 국어선생님
- 46 명상을 말하다 바른 말, 바른 행동
- 48 영화로운 나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가족
- 50 트렌드가 보인다 레고의 착한 놀이가 세상을 바꾼다

-
- 52 공군인의 편지 역경을 박차고 힘찬 날갯짓을
(군수사령부 82창 준위 이종석)
- 53 책 읽는 공군 미숙함의 특별함
(항공안전단 일병 백민근)
- 54 생각하는 그림 존중의 마음을 가질 때





좌측부터 윤요섭 중사(둘째), 홍은옥(어머니),
예비역 윤재영 준위(아버지), 윤요한 하사(셋째), 윤진섭 대위(첫째)

공군가족, 윤가네를 소개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월간 공군 편집실이 특별한 가족을 만나고 왔다.

공군 준위로 퇴역하신 아버지, 그리고 삼형제 모두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군가족 윤가네다.

인터뷰를 한 날은 모처럼 삼형제가 집에 모이는 날이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계룡의 한 공원을 찾았다.

2018년에 퇴역하신 아버지가 마지막 근무지였던 계룡대 옆에 터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아버지에 이어 삼형제가 공군을 선택한 이유와 가족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AF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윤재영(아버지) - 안녕하세요. 공군 예비역 준위 윤재영입니다. 공군 군사경찰 수사관으로 복무하다, 법무 특기로 전환해 공군 준위로 퇴역했습니다. 지금은 기나긴 군 생활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찾아 살고 있습니다.

홍은옥(어머니) - 안녕하세요. 공군인의 아내에서 공군인의 어머니가 된 홍은옥입니다. 남편을 만나 평생을 공군기지에서 지냈고, 이제는 세 아들이 공군에 가 있으니 이쯤되면 저도 공군인이 아닐까 싶네요.



윤진섭(첫째) - 공군 제6639부대 계획처에 근무하고 있는 윤진섭 대위입니다. 2017년에 빨간마후라를 받아 전투조종사로 복무 중입니다. 지금은 잠시 비행대대가 아닌 정책부서에서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윤요섭(둘째) -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제8976부대 수송반에서 차량 운전 및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요섭 중사입니다. 운전은 기본이고, 부대 내 모든 차량들을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업무를 하곤 합니다. 삼형제 중에선 가장 먼저 군에 입대했습니다.

윤요한(셋째) - 공군 제8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에서 사진/영상 촬영 업무를 맡고 있는 윤요한 하사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으로 공군을 홍보하고, 공군 역사를 기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F

삼형제에게
질문드립니다.
공군에
입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요섭 -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전투조종사가 꿈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전공학과와 학군단이 설치된 학교에 입학하고 공군 장교에 도전했습니다. 난시 문제로 신체검사에서 떨어졌죠.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곧장 부사관에 지원했습니다. 꼭 조종사가 아니더라도, 공군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했죠. 아버지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셨어요. 제 성격에 수송 특기가 어울린다고 추천해주셨죠.

진섭 - 저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요섭이랑 같이 고등학생 때부터 전투조종사의 꿈을 키웠죠. 푸른 하늘을 날며 국가를 지킨다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한번은 아버지께 전투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며칠 뒤에 공군에 조종장학생이란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셨고,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요한 - 아버지도, 두 형도 모두 공군에 가니 제가 빠질 수 없죠! 사실, 어릴적부터 아버지가 가끔 입는 정복을 볼 때마다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공군 부사관에 가야지 하고 결심을 이미 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진이나 디자인 분야의 업무를 공군에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제 성격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해주셔서 공보정훈 부사관을 꿈꾸고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윤진섭 대위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AF

이젠 부모님께
질문드리고
싶네요.
삼형제 모두
공군에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
이셨을까요?

재영 -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았죠.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공군에 온다고들 이야기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군 생활과 인생이 인정받은 기분이었습시다. 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한 평생 몸 담았던 조직이기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가끔 제 친구들을 만나면 자식 농사 성공했다며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

은옥 - 첫째, 둘째가 공군에 입대한 것까진 괜찮았는데,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군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많이 속상했어요. 형들처럼 대학생살을 하거나, 해외 유학을 가면서 20대 청춘을 조금은 즐기고 진로를 선택하길 바랐거든요. 또 혹시나 아버지와 형들이 모두 공군에 갔기 때문에, 공군

부사관을 선택했나 걱정도 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되네요. 자식들 모두 잘 적응했고, 자기 성격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삼형제가 같이 공군에 있으니, 힘들 땐 서로 도울 수 있어 참 든든하죠. 이제는 모두 승승장구하길 바라고 있죠.



AF

온 가족이 집에
모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모일 때면
무엇을 하나요?

진섭 -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해서 작년부터는 자주 모이지 못했습니다. 함께 모일때면 어머님께서 항상 고기를 구워주시고, 동생들이랑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요. 보통 어릴적 이야기에서 시작해 군대 이야기로 끝나곤 합니다. 최근엔 둘째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도 나누고, 막내 연애 사업 이야기도 들어주곤 해요.

요섭 - 사실 모였다고 해서 특별히 뭘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평소에 인트라넷 메신저로 그룹대화를 자주 나누다 보니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듣고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다고 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항상 공군이라는 가족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가봅니다.

AF

삼형제가
공군에 있어서
좋은 점은?

요섭 - 우선 대화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형이 조종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줄 때 제 꿈을 대리만족하는 기분이고, 막내가 사무실 막내 간부로 허둥지둥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옛날 초임하사 시절이 떠올라서 재밌습니다.

요한 -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와도 형들이 있어 편하죠. 처음 업무를 할 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다음이 바로 군대다 보니 너무 낯설었죠. 형들이 잘 알려줘서 한결 편했어요. 저희가 특기도, 부대도 모두 다르다 보니 그것도 큰 장점이라구요. 다른 특기의 이야기, 다른 부대의 이야기를 형들이 들려줄 수 있고, 저도 형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니까요.



윤요한 하사 임관식 때
촬영한 기념사진



AF

같은 부대에
근무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진섭 - 관사를 받아 삼형제가 같은 집에서 출퇴근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시끌벅적하니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부대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도와 줄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 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 형들이 저한테 집안일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얼굴 보는 것은 고향에서만 하고 싶네요. 하하하

AF

각자 앞으로
바라는 목표가
있으실까요?

은옥 - 지금처럼 사이 좋게 서로 도와가며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큰 욕심을 바라기 보다 서로가 있음에 만족하고 지냈으면 합니다. 가끔 와주는 것도 좋구요. 사내자식들만 있고 딸이 없다 보니 섭섭한 부분이 가끔 생기기도 해요. 그래도 오늘은 웬일로 아들들이 카네이션을 사왔네요.

진섭 - 비행을 할때나, 운전할 때, 업무를 할 때 모두 안전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큰 욕심 없이 저희 모두 오순도순한 가정 꾸려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AF



계급도, 특기도, 입고 있는 옷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은 한 가족이다.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기도 하면서, 공군으로 하나된 가족이다.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드디어! KF-X가 국민들 앞에 당당히 그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실험을 의미하는 ‘X(eXperimental)’ 글자를 떼고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KF-X의 공식 명칭은 KF-21 보라매다. 21세기의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를 담아 지었다. 이번 코너에는 KF-21의 특징과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 담았다.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문재인 대통령의 KF-21 출고식 기념사 장면

지난 4월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출고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라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지상 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21 보라매는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인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공동개발)만이 개발하고 있다. 또, 고정익 항공기로는 2001년 고등훈련기 T-50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20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KF-21은 F-4, 5 전력을 대체하며 공군의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마하 1.8에 달하는 비행 속도를 가졌고, 7.7톤의 무장탑재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무장을 탑재해 공대공 능력 뿐만 아니라, 육로나 해로를 통한 침투 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 등 우리 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크기는 KF-16보다는 크고, F-15K보다는 작다. 해외에서 도입한 전투기들과는 달리 한국인 조종사 체형에 맞는 조종석을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과거 F-4 전투기의 경우 키가 작은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폐달에 발이 닿지 않거나, 시트가 낮아 전방 시야가 가려져 시트에 방석 같은 것을 추가로 깔기도 했다. 지난 T-50부터 공군사관학교 인간공학연구소에서 다수의 생도와 조종사들의 신체 치수를 측정해 한국인 맞춤형 조종석을 구현한 것이다.

전자전 대응 능력도 훌륭하다. KF-X에 탑재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적외선탐색추적장치(IRST),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장비(EW Suite) 등 4대 항공전자장비 모두 국산화했다. 특히,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에 주목해야 한다. AESA 레이더는 기계식 주사 배열(MSA) 레이더보다 많은 표적을 동시에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 안테나가 표적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빔을 방사하는 MSA 레이더와 달리 AESA 레이더는 빔이 여러 각도로 쏘아 나가기 때문이다. 전투기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광범위한 전장 환경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현재 AESA 레이더 기술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AESA 레이더 등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기술을 KF-16, F-15K 등 기존 전투기에 적용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높은 국산화율도 큰 장점이다. 방위사업청은 KF-21 양산 1호기를 기준으로 국산화율 6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전투기는 한 국가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꼽히는 만큼 개발이 완료되면 경제적 선순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높은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KF-21에 들어가는 3만 개가 넘는 세부 부품의 65%가 국산화됐다. 현재 개발에는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개발 과정에서만 1만 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높은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품의 교체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KF-21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우리 공군은 비행교육훈련부터 영공수호까지 국산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자주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세계 속의 강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KF-21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상 시험을, 내년 7월에는 첫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며, 이후 2026년까지 남은 체계개발 과정을 마칠 예정이다.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시제기 출고는 그동안 도면으로만 존재했던 전투기를 실체화시키고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개발과정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KF-21 보라매

KF-21 보라매의 의미

이번 한국형 전투기의 고유 명칭은 KF-21, 통상 명칭은 보라매다. 전투기 등 무기체계 명칭은 작전 운영, 지원 및 문서 기록 등을 목적으로 문자와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고유 명칭’과 별칭에 해당하는 ‘통상 명칭’으로 구분된다. 한국형 전투기의 경우 ‘21세기 첨단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 전력’,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를 담은 숫자 ‘21’을 사용했다. ‘K’는 우리나라(Korea), ‘F’는 전투기(Fighter)를 의미한다.

이번 한국형 전투기 통상 명칭 보라매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다. 작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보라매는 ‘미래 자주 국방을 위해 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라는 의미가 담겼다.

보라매는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잡아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를 뜻한다. 활동력이 왕성한 시기에 사냥기술까지 익혀, 사냥에 나서면 본인의 몸집보다 큰 기러기나 황새까지 잡을 능력을 갖춘 사나운 사냥매이다. 보라매는 공군의 상징으로 통용된다. ‘보라매 형제’, ‘젊은 보라매’, ‘보라매의 꿈’ 등 많은 공군 군가에도 등장하고, 사관생도나 후보생, 훈련병들을 지칭할 때도 쓰이곤 한다. 



20년 전 꿈꾸었던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실현됐다. 꿈을 현실로 바꾼 우리의 도전!

남은 과정도 무사히 마쳐

우리 전투기로 우리 영공을 수호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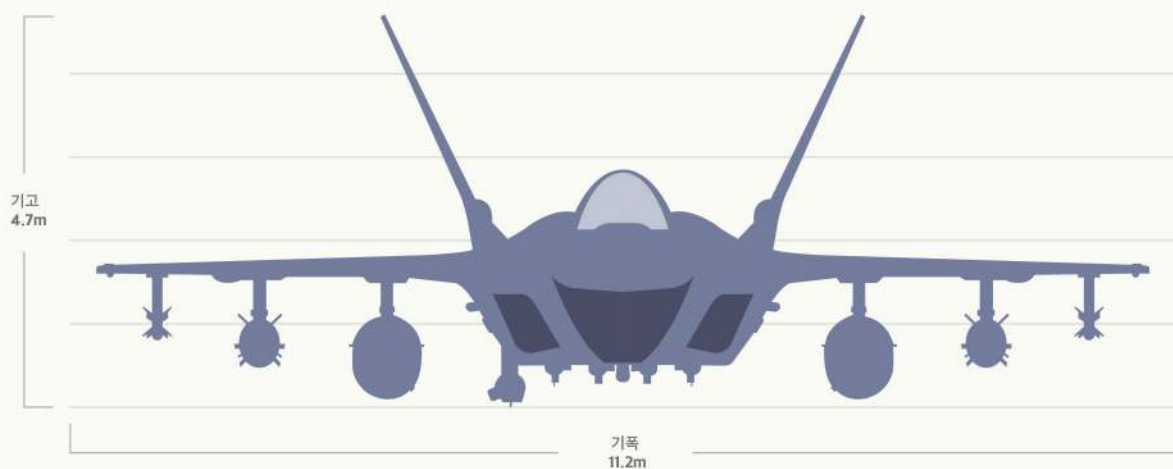


KF-21

월간『공군』에서는 KF-21 보라매에 대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준비하였다.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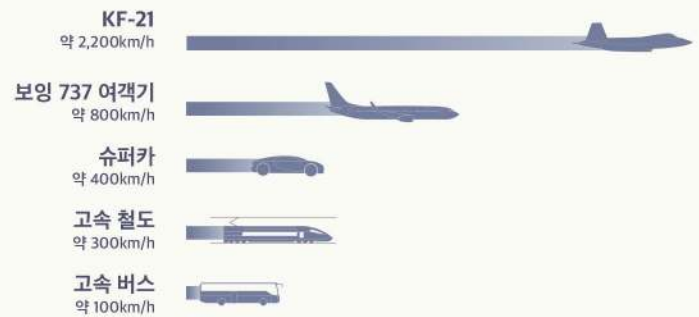


비행능력

(경부선 445KM 기준)



항속거리 : 항공기가 연료의 보급 없이 항행을 계속할 수 있는 거리.



무게 및 추력



추진 일정





정광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국산항공기로 조종사 양성부터 영공방위까지”

KF-21 보라매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출고될 수 있었던 배경엔 많은 관계자들의 피와 땀이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KF-21 사업 관계자 중 한 분을 소개한다. KF-21 사업 총괄자로,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이끌어 온 정광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이다. 그에게 KF-21 이야기를 들어보자.

AF. 공군 장병과 구독자에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정광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안녕하세요,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입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 32기로 1984년 소위로 임관하여 조종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중령 진급 이후 국방부 분석평가관실, 작전사령부 전시계획처에서 근무하였고, 1비 102 비행대대장을 거쳐 공군본부 전력계획처에서 획득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방위사업청이 개청 이후 지속적인

로 획득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AFCCS라고 하는 공군 C4I 개발, 공군 MCRC 성능개량 사업, E-737 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 등의 팀장으로 공군의 주요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였고,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장, 항공기사업부장을 역임 후 2016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기인 한국형전투기(KF-21) 체계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사업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AF. KF-21 사업 총괄자로 계시는데, 이번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정광선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독자 모델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기본 훈련기인 KT-1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고등훈련기의 개발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밝힌 후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우리 공군은 F-4, F-5 전투기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개념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한 전투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02년 합동참모본부에서 차세대 전투기사업에 대한 소요를 결정하였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7차례 검토 이후 14년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15년 KF-X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AF. KF-21 사업을 진행해오실 때, 세워두셨던 목표가 있으셨나요?

정광선 앞서 7회에 걸쳐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분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타당성 검토는 없었거든요. KF-X 사업이 시작되어 시제기가 출고되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전투기는 가장 복잡한 항공기이며 우리 기술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것이라 우려되었죠.

그렇기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 종사자들이 흔들림 없이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 KF-21은 4.5세대 항공기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F-4, 5 전투기와 교체될 것을 고려하고, 공군의 전력 운용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긴 개발 기간을 고려해 개발 이후 더 높은 단계로 성능개량이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추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KF-21이 전력화된다면 최소 30년 이상 운용할텐데, 중간 중간 소요에 따라 성능개량이 가능해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AF. 사업을 진행해오실 때 가장 힘들셨던 점은?

정광선 소요 결정에서부터 시제기 출고까지 항공기를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해외의 기술이전이 무산됐을 때 힘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이 AESA 레이더 기술이었는데요.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선진국에서 개발하는 데 20년 이상 걸리고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10년이라는 짧은 시간과 적은 예산으로는 이뤄내기 어렵다는 우려를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AESA 레이더 개발 위험관리 계획을 세우고 4개 분야 112개 항목에 대한 개발목표를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하여 개발가능성을 최종 확인하였고, 짧은 개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난관으로는 전투기 체계와 주요 장비의 상세설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계란 대략적인 형상으로만 존재하는 항공기와 각 구성품을 세부적으로 실체화시키는 과정인데요. 실제 항공기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전투기 개발의 성과가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품에 대해 개발을 해왔다면, 이 단계에서는 이를 연결시키고 통합시켜 전투기로 만들어야 하기에 정말 많은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조립단계에 도달한 KF-21 시제 1호기

AF. KF-21의 특징을 소개해주십시오.

정광선 KF-21은 국내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무장능력도 뛰어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에 비해 항전장비 능력은 뛰어나고, 5세대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기능은 부족한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16과 F-35 사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KF-21은 스텔스 기술이 일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형상을 설계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죠. 향후에 지속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 높은 국산화율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품인 AESA 레이더 등 4개 항전 장비와 임무 컴퓨터, 비행제어 컴퓨터 등을 개발해 독자적인 성능개량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양산 전까지 지속적으로 국산화 품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투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AF. 이번 KF-21 개발은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일까요?

정광선 자주국방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기존에는 면허 생산을 주로 했습니다. F-5나 F-16 등의 외국 전투기를 수입해 외국업체로부터 자격을 얻어 우리나라 환경에 맞도록 생산을 해왔죠. 그러다가 외국업체와 힘을 합쳐 우리 기술로 초음속 훈련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만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KF-21 개발은 앞으로 더 좋은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F. KF-21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정광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길에서, 시제기를 출고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도전이며 큰 기술적 성과이지만 앞으로 시험평가라는 또 다른 종류의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시험평가 단계는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가 공군이 요구한 성능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KF-21 개발의 성패를 가름할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제점이 식별되면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공군 장병들의 이해와 응원이 더한다면 KF-21 사업은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동개발 참여국가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고, 사업에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며 KF-21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우리의 방산 무기체계의 최대 수입국임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업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시제기 출고식에서 보셨듯이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출고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기도 하

였습니다. 현재 양국 정부 모두가 호혜적인 관계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머지 않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AF. 공군 장병과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나요?

정광선 한국형전투기의 소요가 결정된 이후 정부, 학계, 업체 등 수많은 관계자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현재까지 체계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시제기를 제작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국산항공기로 조종사 양성부터 영공방위까지 우리의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형전투기의 체계개발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단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지상시험과 이후 2,000여 회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통과해야만 전투기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나 유튜브 등을 보면서 한국형전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과 학계, 업체의 모든 관계자들이 지금까지처럼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한국형전투기는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며, 국민들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F

Rights ROKAF

모두와 함께하는 인권교육



안녕하세요. 공군인권나래센터입니다. 공군인권나래센터는 이렇게 매달 Rights of Korea Air Force(ROKAF) 코너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번 5월호에서는 공군인권나래센터에서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인권교육'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권교육은 왜 필요할까?

매년 공군 장병과 군무원들은 인권교육, 성인지교육, 자살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군법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국가와 군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들이인데요.

그 중 특히 인권교육은 군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명령과 지휘체계가 존재하는 곳에서 근무하다보면, 본인의 소중한 권리인 인권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게 되면 인권을 망각하는 현상이 대물림되게 되죠. 그 결과는 많은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상대방을 나 자신처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교육하죠. 지휘관은 부하의 입장에서, 부하들은 지휘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면, 한마음 한뜻을 품은 부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 인권교육은 군 내에서 의무교육인데요. 군인복무기본법에서는 일반 장병 및 군무원의 경우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휘관 보임 예정자나, 신병 같은 경우 신분 전환에 따른 군인으로서의 인권의식 확립 측면에서 특별히 교육과정 중 추가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누가 할까?

인권교육은 지휘관, 인권교관, 인권교육 담당자가 실시합니다. 이 중 인권교관이 대부분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대 주임원사 또는 군법무관이 인권교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군인권나래센터 출범을 계기로 공군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과한 장병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훈련 중인 후보생, 신병에 대해서는 나래센터 법무관이 직접 출강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나래센터 또한 매달 신병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공군인권나래센터가 군 복무기간 내내 그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군인권나래센터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수요자의 신분·계급·보직 등에 따른 체계적 인권교육입니다. 간부, 병사 모두를 한군데 모아놓고 일률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가 신분별·계급별로 교육내용을 달리하여 수요자 맞춤형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권교육입니다. 그동안의 인권교육은 군법교육 시간에 포함되어 잠시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고 그 내용 또한 추상적이고 형식적이어서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군인권나래센터는 교육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비교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장병과 군무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올바른 언어사용’입니다. 작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유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비해 관대하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상하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언어폭력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감’입니다. 간부가 간부의 시각으로, 병사가 병사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공감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으로, 말하기의 무능은 결국 행동의 무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교육생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고민과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중너중’입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너도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인격이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상대방의 인권도 동일하게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군에 입대한 성소수자, 다문화 장병의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비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장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교육 방향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강사에 의한 재미있고 유익한 인권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무조건 잘하자, 서로 아끼고 위해주자”라는 식의 상투적이고 비전문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인권교육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교관의 전문성과 교수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하나의 표준 인권교안이 아니라 신분별·계급별·보직별로 구분된 복수의 표준 인권교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모두 참여하는 쌍방향 인권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졌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대면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유튜브, 카톡 채널(‘공군인권나래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의 인권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내용의 인권영상, 웹툰,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피드백 접수 및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생과 신병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많은 장병들이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교육 중간 중간에 질문을 하는 모습에 감명받곤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열심히 인권을 알리고, 인권이 보장받는 공군을 만들자고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군인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AF**

공군 조종사들은 매일 블루베리를 챙겨먹나요

글쓴이

한국일보 정승임 기자

2011년 2월 한국일보에 입사했습니다. 국회, 경찰청, 통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서울시청 등을 출입했고, 작년 7월부터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쉽지만 유익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공군 파일럿들은 하늘에서 내려 보낸 사람들인가?’

좀 엉뚱하지만 국방부를 출입한 이후 공군 조종사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물론이고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까지. 과거 전투기를 몰았던 공군 조종사 출신 군 수뇌부들은 하나같이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되려면 시력이 좋아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예순을 바라보거나, 훌쩍 넘긴 나이에도 ‘맨눈’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신기했다. 어떻게 그 나이까지 그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들이 태어날 즈음에 하늘에서 ‘조종사가 돼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중년의 나이까지 ‘최상의 눈’을 유지하도록 지켜주는 건 아닌가 하는 음모론(?)까지 제기할 뻔했다. 공교롭게도 육군 출신인 서욱 국방부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모두 안경을 쓰고 있다.

국방부를 출입한 지 1년이 채 안돼서일까. 조종사의 10%는 안경을 착용한다는데 나는 아직도 안경 차림의 조종사를 보질 못했다. 심지어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현역 공군 공보 장교들까지도 시력이 좋았다. 눈에 좋다는 블루베리가 매일 공군 밥상에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몽골로 단체여행을 가서 넓은 초원을 바라보며 시력을 키우고 돌아오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공군만 챙겨먹는 건강식품 혹은 특별한 관리법이라도 있는 건지. 대한민국에서 ‘눈이 제일 건강한 집단’인 공군을 향한 미스터리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조종사들이 직업에 대해 갖는 자세다. 좀 더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투철한 직업의식’ 정도 되겠다. 조종사가 챙길 것이 어디 시력뿐일까. ‘공군 공중 근무자의 신체검사 기준’을 찾아봤다가 머리가 깨질 뻔했다. 시력, 굴절, 망막, 각막 등을 보는 안과는 물론이고 사지, 척추,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혈액, 이비인후과, 신경과, 치과, 피부과까지. 챙겨야 할 신체 부위는 많고 그 요구 수준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이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인 동시에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지상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다. 이 기준들을 지키기 위해 평소 얼마나 많이 조심하고 얼마나 많은 볼 것과 먹을 것들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지 가늠이 안 갈 정도다.



일반인이라면 눈뜨고 기절한다는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G테스트)은 또 어떤가. 급격한 중력 가속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실제 비행보다 힘들게 설계된 이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체력 좋은 일반인도 6G(본인 체중의 6배 압력)에서 블랙아웃을 겪거나 실핏줄이 터졌다는 경험담을 들으면 9G까지 버티는 전투기 조종사들은 무슨 초능력이라도 보유한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해 7월부터 국방부에 본격 출입하게 되면서 공군뿐 아니라 군 조직의 문화를 새롭게 익히는 중이다. 내가 주로 접하는 군의 공보 파트는 지난 10년간 거쳤던 술한 출입처 가운데 언론 대응이 가장 빠른 집단 중 하나다. 눈 뜰 무렵인 아침 7시쯤, 군은 일사불란하게 모든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이다. 군처럼 넘쳐나는 출입처 기자들의 기사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는 조직도 드물 것 같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조직이기에 밤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취재 차 연락할 때마다 눈치가 덜 보여 한편으론 든든하고 고마운 점도 있다.

물론 언론 대응이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다. 전화를 제일 빨리, 잘 받는 출입처긴 하지만 동시에 확인이 가장 안 되는 곳이니 말이다. 통화가 된다 해도 ‘답변이 제한된다’는 식의 ‘팅 빈’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야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또 적응해가는 중이다. ‘제한된 답변’과 독자의 알 권리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은 또 언론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조종사들이 심신 관리에 에너지를 쏟듯, 제한된 범위에서 좋은 기사를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는 건 언론인의 역할이니 말이다. 끊임 없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의 열 마디를 하나의 기사에 담아내는 데 익숙했던 나는, 요즘 말을 아끼는 군 당국자의 한마디로 10개의 기사를 쓰는 재주를 부리려고 노력 중이다.

최근 공부 목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가 빠져버린 전쟁 영화들을 볼 때마다 튼튼한 안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는다.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방심하면 평화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보다 자주국방은 강한 공군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걸 말이다.

그러니 신이 부여했을지도 모르는(?) 심신을 잘 유지하시길 바란다. 파일럿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 부담스러워하다면 이 환상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하늘, 대한민국의 영공을 더 빈틈없이 든든하게 지켜주시길. 물론 우리도 지상에서 공군을 응원하는 기사, 때로는 공군 발전을 위해 합리적 비판을 담은 기사를 열심히 쓰겠다. [AF](#)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15화 김수영(金洙暎) 시인 편



『코메트』 제19호, 1956년

백의(白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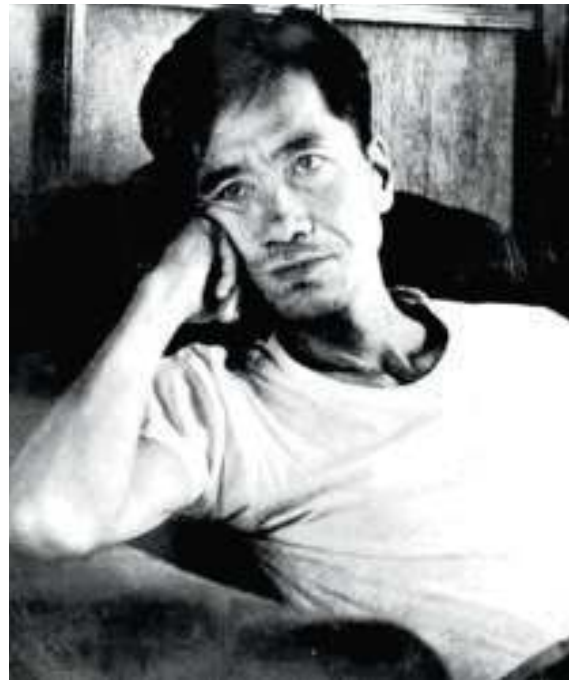
내가 비로소 여유를 갖게 된 것은
거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집 안에 있어서도 저 무시무시한 백의를 보기 시작한 때부터이었다
백의는 자동식 문명의 천재이었기 때문에 그의 소유주에게는 일언의 약속도 없이 제가 갈 길을 자유자재로
찾아다니었다
그는 나같이 몸이 약하지 않은 점에 주요한 원인이 있겠지만,
뇌신(雷神)보다 더 사나웁게 사람들을 울리고
뮤우즈보다도 더 부드럽게 사람들의 상처를 싸다듬어 준다
질책의 권리를 주면서 질책의 행동을 주지 않고 어떤 나라의 지폐보다도 신용은 있으나 신체가 너무 왜소한
까닭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중략)

오히려 이와 같은 나의 경멸과 강의(剛毅)로 인하여 나는 그날부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어저께 내가 오래간만에 거리에 나가니
나의 친구들은 모조리 나를 회피하는 눈치이었다
그중의 어느 시인은 다음과 같이 나에게 욕을 하였다
더러운 자식 너는 백의와 간통하였는지? 너는 오늘부터 시인이 아니다.
백의의 비극은 그가 현대의 경제학을 등한히 하였을 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시인 김수영 선생은 공군지에 시 2편을 남겼다. 시 「백의」와 「꽃」이다. 시 2편 모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의 대표작인 「풀」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시이다. 시 ‘백의’는 흰개미라는 뜻이다. ‘흰개미’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이 긴 시를 다 읽어가도록 흰개미에 대한 상상력 전개가 너무 다양하고, 확실한 이미지의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 아마 읽는 이에 따라 흰개미의 의미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시어가 품고 있는 이미지들은 서로 중첩적이고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당시 사회현상을 유추하며 해석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시어다.

시인은 6.25전쟁 중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지낸 적이 있다. 그 안에서 좌파와 우파, 군인들 간의 극심한 반목과 폭동, 살인 등에 시달리면서 생의 아픔을 뿌리 깊게 느꼈다. 불합리하고도 혼란한 당대 상황과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는 자본주의에 ‘백의의 비극’을 절실히 깨달았다.



김수영 시인

목조 주택을 값아 지붕을 무너뜨리기까지 한다는 흰개미에 대한 위기감은 비속한 자본주의 대중문화를 가리키기도 하고, 당시 사회의 한쪽으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코메트』 제31호, 1957년

꽃

심연(深淵)은 나의 붓끝에서 퍼져가고
나는 멀리 세계의 노예들을 바라본다
진개(塵芥)와 분뇨(糞尿)를 꽃으로 마구 바꿀 수 있는 나날
그러나 심연보다도 더 무서운 자기 상실에 꽃을 피우는 것은 신이고

나는 오늘도 누구에게든 얹매어 살아야 한다

도야지 우리에 새가 날고
국화꽃은 밤이면 더한층 아름답게 이슬에 젖는데
울겨울에도 산 위의 초라한 나무들을 뿌리만 간신히 남기고 살살이 갈라갈 동네 아이들……
손도 안 씻고
취풍도 제멋대로 내버려 두고
닭에는 발등을 물린 채
나의 숙제는 미소이다
밤과 낮을 건너서 도회의 저편에
영영 저물어 사라져버린 미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을 사랑하는 님이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고귀한 생명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꽃’에서 우리는 쉽게 아름다움과 서정성이라는 공감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김수영의 시『꽃』에서는 ‘세계의 노예’, ‘진개와 분뇨’, ‘취풍’, ‘도야지 우리’ 등 우리의 통념을 벗어나는 낯설고 그로테스크한 단어들이 나온다. 초라하고 궁핍한 삶의 진경들만 읽게 된다. 특히 1연에는 신과 인간 사이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신과 인간이 서로 대치되는 고단하고 구차한 현실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숙제로 고민해보는 것이다.

시인은 1921년 서울 관철동에서 출생해, 도쿄상대에 입학했다가 1943년 학병징집을 피해 귀국했다. 이후 연세대 영문과에 편입했으나 중퇴하고, 1945년 <예술부락>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하며 이름을 알렸다. 1949년에는 박인환, 김경린 시인과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출간하며 모더니스트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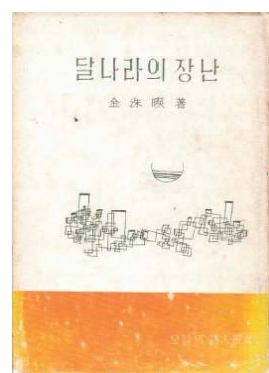
그는 1950년 6.25 때 북한군에 의해 단체총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거제도 수용소에 다시 갇혔다가 석방됐다. 1955년부터는 양계를 하며 시와 평론, 번역에만 전념했다. 초기 시집 <달나라의 장난>(1959)에선 소시민적인 비애를 모더니즘적인 감각으로 표현했으며, 1960년 4·19혁명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현실참여시를 발표했다. 1968년 교통사고로 타계하기 직전 쓴 <풀>은 1970년대 민중시의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해방 후 초기에 모더니즘 시인으로 활동했지만, 4·19혁명을 거치면서 사회비판적 참여시를 쓰는 시인으로 변했다고 평가받는다. 현실의 중력과 압박감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기 상실을 스스로 빈정거리기도 하고, 긍정의 미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김수영 시인이 완전히 리얼리스트로 변모한 것은 아니다. 그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결합시켰다. 모더니즘이 현실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면, 리얼리즘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4·19혁명 후 그의 시는 현실비판적인 성격을 띠며 난해하지 않은 시로 대변신을 한다.



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시집 달나라의 장난

푸른 하늘을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왔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약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1960. 6. 15.)



김수영 문학관 외부와 내부

작품 <푸른 하늘을>은 4·19혁명 직후에 쓰였다. 혁명의 열기가 채 가라앉기 전에 쓰인 작품이라 피 냄새가 난다. 푸른 하늘은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자유로운 공간을 제압하는 노고지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타자의 자유를 제압하는 노고지리는 스스로도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푸른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유되고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를 위해서 비약해본 일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알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 자유에는 피 냄새가 섞여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그는 “혁명은 고독하다”라고 거듭 강조한다. 일상에 빠져 사태를 정확히 보지 않으려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혁명에 참여하기보다는 그 결과물을 나누어 먹기에 혁명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수영의 초기 모더니즘 시나 후기 현실 비판적 시는 둘 다 반서정적이다. 김수영은 자신의 반서정적인 시를 반시(反詩)라 규정지었다. 이 반시는 해체시의 다른 이름이다. 전통적인 서정시는 이상적인 자연이나 고상한 인물 등을 모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해체시는 모방의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지리멸렬하고 비굴하고 그로테스크하게 뒤틀려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실 비판적이면서도 뒤틀린 자아와 현실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그의 시는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수영 시인의 문학관이 2013년 11월에 개관됐다. 북한산 둘레길과 연계하여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32길 80번지에 있다. 주말에 한 번쯤 시간을 내어 김수영 시인의 감정과 고민들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AF

* 김금용 시인: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광화문 자콰』, 『넘치는 그늘』, 『핏줄은 따스하다, 아프다』, 번역시집 『문학이 낳은 중국현대시』, 『나의 시에게』, 『오늘 그리고 내일 今天與明天』, 외 문학상 다수 수상. 현재 『현대시학』 주간.



2021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



참가 대상

공군 장병 및 군무원,
대학(원)생 (사관생도 포함),
스타트업 기업, 연구기관

공모 주제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공군 임무분야 디지털 전환 방안

* 세부 공모분야와 출품작은 홈페이지 참고

행사 일정

접수기간

2021년 4월 12일 (월) ~
2021년 7월 10일 (토) 정오까지

멘토링

2021년 8월 2주 중 1일

본선대회

2021년 8월 4주 중 2일

* 코로나 19 관련 행사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접수 방법

공군 해커톤 홈페이지 참조

일반인 www.공군해커톤.kr

장 병 공본 인트라넷 해커톤 홈페이지

수상 내역

10개 팀 시상 총 **상금 1,390만원**

구분	개수(팀)	상금	시상
대상	1	500만원	공군 참모총장상
최우수상	1	250만원	공군 참모총장상
우수상	4	120만원	공동주관 기관장상
장려상	4	40만원	공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상



주최 주관



후원



제25화 ㈜헤럴드 김보현 부사장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공군을 떠났지만, 공군에 대한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공군 출신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공군의 우수한 조직 문화 때문인지, 공군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항상 떠오른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공군 사랑이 끝나지 않은 한 분을 만나고 왔다. 30여 년간 공군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언론사 부사장인 김보현씨를 소개한다. 공군인 시절 다 하지 못한 이야기와 지금 언론사 부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공군인에서 언론사 경영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1988년 공군사관학교 36기로 임관해 전투기 조종사로 32년간 근무하고, 2020년 1월 공군 준장으로 전역한 김보현입니다. 전투조종사로 A-37B, F-5A/B, F-4D/E, (K)F-16, T-50 등 다양한 기종을 비행했으며,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방위사업청 등 정책 부서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전문지인 '헤럴드경제'와 영자신문인 '코리아헤럴드'를 발간하는 (주)헤럴드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 조직에 머무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를 이야기할 땐 공군에서 시작돼 공군에서 끝납니다. 저의 신념과 철학 모두 공군에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20살, 정열과 패기만을 가지고 들어간 공군사관학교에서 지·덕·체를 배웠고 전투조종사가 된 뒤에는 영공을 수호하며 저의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중령 진급 이후 정책부서에서 근무하며 군인의 책임감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장군 진급 이후에는 리더십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군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군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꾸고 싶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의 모습을 조명하고 싶습니다. 또, 양극화 되어가는 사회에 소통과 융화를 위한 시각을 제공하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사무실에 놓여 있는 공군부대 코인

공군인 시절 못다한 이야기

공군에 있으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KF-21 보라매입니다. 2012년 초대 KF-X 사업지원팀장 직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KF-X 사업이 구체화 되기 전이었습니다. 미래 우리나라 영공을 지켜나갈 중요한 전력사업이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어려웠습니다. 전투기를 조립은 KAI가 맡았고, 사업 진행은 방위사업청이 하였으며, 앞으로 전력을 운용하는 것은 공군이 해야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 과정이 복잡했죠. 또, 최소 30년 뒤의 미래 전장을 고민하며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도 고려해야 했고,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KF-21의 엔진을 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단발 엔진과 쌍발 엔진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공군의 입장은 쌍발 엔진으로 제작하길 원했고, KAI의 입장은 단발 엔진으로 제작하길 원했죠. 긴 시간 동안 치열한 논쟁을 거쳐 쌍발 엔진으로 결정됐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날보다 관련 기관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들과 회의를 다니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열심히 뛰었거든요. 진심이 통한다고 느껴졌던 순간이네요.



지난 4월에 출고한 KF-21 시제 1호기



203대대장 시절 T-50 항공기에 탄 모습



생도대장 취임식

제1전투비행단 203비행교육대대장을 맡았던 순간도 떠오르네요. 당시 203비행교육대대는 T-50 전력화를 갖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최초로 T-50을 운용해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시기였죠. T-50과 유사한 F-16을 주기종으로 하며 교관조종사 경력이 있어 대대장으로 발탁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대장 보임 직후 기종전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T-50 비행교육과정의 첫 학생조종사 12명을 만났죠. 무엇이든 처음인 상황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둘렀답니다. 지금은 그 학생조종사들이 능숙한 교관조종사가 되어 있다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지나간 일에는 크게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행동하다 보니 아쉽다고 느끼는 일이 많지 않으나 그래도 하나 꼽자면,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직을 맡았던 기간이 생각나네요. 2014년 말에 생도대장 직을 명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죠. 미래 공군을 이끌어 갈 든직한 후배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사관생도 시절을 떠올려보고, 장교 생활을 돌아보며 생도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싶었고, 조직과 기관에서 일하는 보고체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6개월 만에 급히 인사이동을 하면서 제 소망으로만 남기고 말았죠.

공군을 사랑하는 언론사 경영인으로 새출발

처음 회사에 출근할 때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평생 군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죠. 비행단 지휘관을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수천 명의 인원이 근무했고, 다양한 계층이 있어 조직관리를 하는데 쉽지만은 않았죠. 지금 회사는 비행단과 비교하면 10%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조직관리 만큼은 자신있지’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았거든요. 인원수는 줄었지만, 이곳에도 다양한 계층과 수많은 조직이 있죠. 역시 ‘쉬운 일은 하나도 없구나’라고 뒤늦게 깨우쳤답니다.

지금 저는 회사 내 살림살이를 책임진다고나 할까요. 인사 및 조직관리, 노사관계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하는건 아니네요. 회사 업무에 적응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회사 비전을 재정립했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활자 신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사가 아닌 미디어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에 발맞춰 사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필요했죠. 곧바로 T/F팀을



유튜브 <프로파일럿> 채널 팀 회의

꾸렸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WE HERALD!’라는 비전을 만들고,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다’는 뜻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비전과 함께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4H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정직함(Honesty), 인간다움(Humanity), 조화로운 사회(Harmony), 건강한 미래(Health)를 제시하며 뚜렷한 목표도 제공했습니다.

또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요즘에는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독자보다, 영상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얻는 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영상콘텐츠를 제작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맨땅에 헤딩을 할 순 없으니 가장 자신있는 분야인 ‘공군’과 ‘전투기’로 포문을 열었죠. 그렇게 만든 채널이 ‘프로파일럿’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어요. 돌이켜 보면 짧은 시간인데, 분주히 움직였네요. 가만히 멈춰있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꾸준히 도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려고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이제는 공군을 떠나왔지만, 아직 마음은 못 떠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조종간을 잡고 푸른 하늘을 비행하는 꿈을 꾸는데요. 기분 좋은 꿈이라, 자주 꿔으면 한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행 준비를 못 하고 비행을 나가야 하는 악몽을 꿀 때도 있답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응원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군 사랑을 매일 느끼는데요. 저도 앞으로 제 위치에서 공군을 더 잘 알리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공군 장병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공군을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승! 



유튜브 <프로파일럿> 채널 로고

우 리 부 대 는



뭉치자 최강38! 힘차고 활기차게!

제38전투비행전대

배려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제38전투비행전대
공군 주력기종인 KF-16을 운용하며 대한민국 남서부 영공방위를 책임지는 제38전투비행전대를 소개한다.

부대 마크의 의미

- 태극바탕 :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위국헌신의 애국심을 표현
- 독수리 : 공군을 상징, 은빛의 테두리는 KF-16 기체의 단단함과 견고함을 상징
- 별 : 서쪽 하늘의 빛이 되고자 하는 부대원의 염원을 담음
- 38 : 공군을 상징하는 독수리를 38전대가 떠받치고 있는 모양(독수리 날개 아래 좌우)

부 대 연 혁

- 1965. 03. 제111전투비행대대 군산 주둔(F-86 운영)
- 1985. 09. F-5 E/F 기종 전환
- 1987. 12. 제38전투비행전대 창설
- 2006. 12. KF-16 C/D 기종 전환
- 2009. 05. Max Thunder 훈련 실시(KF-16 최초)
- 2014. 09. Red Flag-Alaska 훈련 참가(KF-16 최초)
- 2016. 12. 예속 변경(북부전투사령부 → 공중전투사령부)
- 2017. 12. 전대 8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KF-16

한반도 남서부 영공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투비행전대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는 1987년 12월 1일 창설되어 공군의 주력 기종인 KF-16을 운용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투비행전대이다. 38전대는 한반도 남서부 영공이 주 무대다. 2013년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이 확장된 이후에는 NLL과 서북도서에는 물론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까지 작전반경이 넓어졌다. 38전대는 전·평시 어떠한 도발에도 대한민국 남서부 영공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한 철저한 전투준비태세를 불철주야 유지하고 있다.



부대 창설식



이륙하는 KF-16



Invincible Tigers! 뭉치자 111! 천하무적 타이거!

공군은 남서부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당시 제11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제111전투비행대대를 1965년부터 군산기지에 주둔시켰으며, 111대대를 근간으로 이후 38전대가 창설됐다. 군산기지 배치 후, 111대대는 1969년 간첩선 나포 및 무장공비사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F-86, F-5에 이어 KF-16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주력기종을 운용해 온 111대대의 상징은 ‘호랑이’다. 평소 실전적 훈련과 강력한 전투 준비태세로 무장한 111대대는 ‘호랑이’와 같은 날렵함과 용맹함으로 유사시 어떠한 적과 조우하더라도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무장장착 훈련

선제적 정비지원으로 항공작전 완벽지원

2006년부터 군산기지에서 항공작전을 수행해온 KF-16은 대한민국공군의 주력기종이다.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항공기 KF-16은 민첩한 기동력과 뛰어난 범용성을 자랑한다. 군수대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팀워크를 발휘해 항공기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신 항공전자장비가 탑재된 KF-16 성능개량항공기가 군산기지에 도착했다. 38전대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다.



연합 항공작전 브리핑

한반도 유일의 연합 항공작전 수행기지

군산기지는 한반도 유일의 한미 연합 항공작전 수행기지다. 한국 공군 38전대와 미국 공군 8전투비행단(이하 '미 8비')이 기지를 공유하고 있다. 여의도의 2.8배 크기의 광활한 기지 내에서 활주로와 유도로 등의 작전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함께 사용하다 보니 부대원들은 한미동맹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기지대대는 기지방호, 활주로 제설, 정보통신체계 운용, 복지시설 운영 등 군산기지 전반을 미 8비와 함께 운영해 작전은 물론 장병들의 생활까지 책임지고 있다.



한국·미국군 가족 한국문화 교류행사

한미동맹의 최일선, 한미 문화 교류에도 앞장서는 38전대

38전대는 미 8비와 함께 생활하며 한미동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작전과 훈련을 통해 다양한 전술을 공유하며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신장시킨다. 또한, 한미 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문화적 교류까지 이뤄지고 있다. 한미 장병 무장장착 경연대회, 태권도 대회, 인근 지역 문화탐방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전우애는 물론, 양 국가 간의 상호이해까지 돕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AF**





블랙이글스, 청주기지 디스플레이 훈련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3월 31일(수) 청주기지 장병들이 보는 가운데 파란 하늘에 수놓으며 아름다운 비행을 펼쳐보였다.



KF-21 시제기 출고행사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4월 9일(금), KAI에서 진행된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행사에 참석했다. KF-21은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과 한반도 평화수호의 주역이 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공군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담아 '보라매'로 명명되었다.

KT-1 지휘비행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4월 6일(화) 제3훈련비행단에서 KT-1 지휘비행을 실시하였다. 이날 지휘비행은 최초 국산훈련기 KT-1의 비행교육훈련 개시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계획됐다.

'21-1차 고등비행 교육과정 수료식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4월 14일(수) 제1전투비행단에서 '21-1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을 주관하고, 45명의 신임조종사들에게 빨간마후라를 수여하였다. 참모총장은 신임조종사들에게 “조종사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작전사령부

단거리 방공무기 사격대회

작전사령부는 4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2021년 전반기 단거리 방공무기 사격대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미스트랄)' 부문을 개최했다. 대회에 참가한 방공작전요원들은 평소 교육·훈련으로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였다.



제8전투비행단

활주로 폐쇄 시 처리절차 훈련

제8전투비행단은 4월 13일(화), 작전요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주로 폐쇄 시 처리절차 훈련을 실시했다. 지상구조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항공기 안전조치, 조종사 구출, 활주로 개방, 잔해 처리, 현장 복구 등을 수행하며 처리절차를 숙달하였다.



제10전투비행단

전투태세훈련

제10전투비행단은 3월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비행단 작전수행능력을 점검하고,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1-1차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하였다. 전시 출격, 긴급 귀환 및 재출동, 최대 무장장착, 야간기 지방호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들을 실시하였다.



제20전투비행단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푸드트럭 운영

제20전투비행단은 4월 10일(토), 주말을 맞아 코로나 19로 지친 장병과 군 가족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푸드트럭을 운영하였다.



제2방공유도탄여단

배농가 대민지원

제2방공유도탄여단은 4월 9일(금)부터 3일 동안 부대 인근 배농가를 찾아 대민지원을 실시했다. 40여 명의 장병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배꽃 인공수분 작업을 도왔다.



제3방공유도탄여단

식목일 맞이 기지 환경미화

제3방공유도탄여단은 4월 6일(화) 식목일을 맞아, 기지 내 환경미화 활동을 펼쳤다. 기지 내 수목과 무궁화를 옮겨 심고 배수로 정리 등을 실시하였다. 

한 달, 한 권



나의 국어선생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재개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져보니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키팅 선생님을 행가래하고 걸어가는 학생들의 환한 웃음과 오늘 하루를 즐기라 했던 “카르페 디엠(Carpe diem)”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영화를 떠올릴 때면 나에게도 키팅 선생님과 같은 국어선생님이 있었으며, 나 또한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틈만 나면 낭랑한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정지용, 김영랑, 백석..., 꽤 많은 시인의 시를 읽어주시던 선생님은, 너희들은 이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시 몇 편은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방학이 되면 으레 숙제로 내주신 것이 있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일간지 사설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한자를 펜글씨로 써오라 하였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조사 빼고 거의 다 한자였으니 그 양이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온전히 숙제를 다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선생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친구들은 소주와 함께 시 몇 구절씩 꺼내놓곤 합니다. 좋은 글씨체를 갖고 있고 기름진 밥은 아니어도 따뜻한 밥은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 또한 그러했으니 나의 절반 이상은 선생님이 길러주셨다고 장담합니다.

이제 선생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십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 맛있는 것 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찮은 것만 쫓아 다니다가 내 마음속 한편에 선생님 답아들 자리는 없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오월의 책으로 한동일 교수의 『라틴어 수업』을 추천합니다. 가뜰이나 심란한데 무슨 라틴어나고 어이없어하는 소리가 선합니다. 사실 서점주인 입장에서 이 책을 처음 받아본 순간 난감했습니다. 검정색 표지에 황금나무가 그려져 있고 무슨 자신감인지 비닐 랩으로 단단히 밀봉되어 왔습니다. 저걸 읽어 말어 고민하던 차에, 이 책 어떤 책이냐고 묻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책을 펼치게 되었고 이

를 만에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난 후에는 라틴어는 온데 간데없는데, 마음은 차분해지고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자 한동일은 사제로서,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로서, 서강 대학교와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직을 내려놓고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서강대학교에서 강의했던 수업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책 제목은 ‘라틴어 수업’이지만, 라틴어와 함께 고대 로마를 여행하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저자가 로마 유학시절에 겪었던 에피소드가 종종 나오는데 그 얘기들이 재밌습니다.

저자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진실의 입’을 지나쳐야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술에 절어있는 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지나갈 때면 “너 일본 사람이니?”라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다음날이면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참다 참다 화가 나서 “스툴투스 에스(Stultus es).”라고 욕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아마 라틴어로 “멍청한 놈” 정도 되는 욕일 것입니다. 그렇게 후련하게 욕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저자는 자신이 “멍청한 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걸인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관심 없고, 그저 동전 한 푼 얻고 싶어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을 뿐인데... 누군가의 가슴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욕부터 해댄 자신이야말로 멍청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는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저자는 자신이 사막에서 죽음과 직면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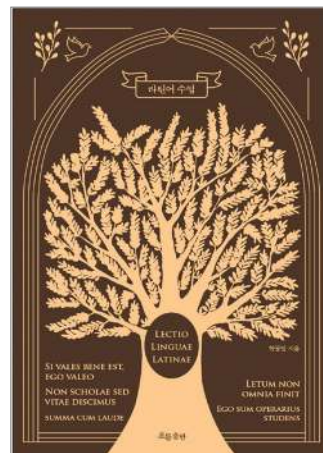
“나는 남은 생 동안 간절하게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267쪽)

결국, 저자가 『라틴어 수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불어 그 사랑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책 갈피 갈피마다 넣어두었습니다.

“시 발레스 베네 발레오(Si vales bene, valeo.). 그대가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라는 로마인의 편지 인사말을 통해 생각해봅니다. 타인의 안부가 먼저 중요한, 그래서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안녕하다’는 그들의 인사가 문득 마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144쪽)

오월 어느 휴일에는 잠시 잠을 내서 가까운 대학교정에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 혈령한 운동화를 신고, 읽기 쉬운 얇은 책도 한 권 챙기겠습니다. 가로수길을 거닐다가, 인문학관 빈 강의실도 기웃거리 보고, 나무 벤치에 앉아서 새들과 꽃들과 살아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그들의 하루를 배우고 싶습니다. **AF**



『라틴어 수업』
한동일 지음
흐름출판



글쓴이

현재 『월간에세이』 편집위원

명상을
말하다



바른 말,
바른 행동

오늘은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말을 알아듣고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배워 왔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바르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남이 나에게 쏘아대는 눈총이 두려워서,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걸 기대해서,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해서 ... 등등. 각자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평소 바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명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나고요? 우리는 마음챙김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바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마음챙김 명상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자신에 관해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산란해서 집중이 잘 안되고, 그런 마음으로는 지금 여기의 일을 고요하게 제대로 알아차리는 명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바른 말과 행동은 명상의 필수조건입니다.”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면, 마음 깊숙이 일종의 죄책감이 남고 죄책감은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마음 안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다면 마음이 고요해질 수 없고 들뜨게 마련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고요하게 집중된 마음으로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서양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마음챙김 명상이 개인과 회사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방법으로 유행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은연 중 평소 아무렇게 말하고 행동하더

라도 명상만 잘 하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챙김 명상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점점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평상시 바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는 제대로 명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바른 말과 행동이 수반된 전체적인(holistic) 명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명상적으로 보면, 좀 더 나은 사람이란 스스로에 대해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평정심을 가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바르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또는 나중에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상가에게 바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건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냄비? 물? 불? 라면? 아닙니다.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는 의도지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맨 먼저 의도가 앞섭니다. 어떤 의도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에 모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른 말과 행동은 바른 의도의 표현이고,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은 바르지 못한 의도의 표현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기여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는 결국 나의 의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는 의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

하고, 좋은 의도는 바른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며, 바른 말과 행동이 다시 제대로 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른 말과 행동이 바른 명상으로, 바른 명상이 바른 의도로, 바른 의도가 다시 바른 말과 행동으로 선순환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 갈지는 모두 나의 의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살아 있는 목숨을 죽이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 말이나 이간질을 하지 않으며,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 등이지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을 절제하거나 감행하는 데에는 그런 의도가 앞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보다 그런 말과 행동을 이끌어 내는 의도를 먼저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깊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 예를 들면 행복, 평화, 우정, 친절, 관용, 사랑, 이해, 관심 등의 단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마음에 관한 단어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부분 어떤 좋은 의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반응’이 바로 내가 일으키는 ‘나의 의도’입니다. 결국 내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건 내가 세상에 대해 바른 의도로 바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영화로운 나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가족

영화 『미나리』는 전세계 98관왕, 199개 노미네이트도 모자라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둔 현재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며 또 다른 트로피 추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에 쏟아진 찬사치고는 대단한 기록이죠. 대체 이 영화의 어떤 점이 문화와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까지 사로잡은 걸까요? 바로 만국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주한 제이콥(스티븐 연)과 모니카(한예리)는 도시 생활을 접고 아칸소주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보란 듯이 한국 채소를 길러 성공해보겠다는 제이콥은 의욕이 넘치지만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연고도 없는 시골에서 땅만 파고 있는 남편이 모니카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이 트레일러에서 살림을 꾸려야 하고 심장이 좋지 않은 아들 데이빗(앨런 김)의 건강 때문에 병원에서 멀리 떨어지게 된 것도 불안합니다. 그런 모니카의 마음을 알면서도 제이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에 가족들의 불만을 모른 척하고 농사에 매달립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제이콥의 선택은 이 가족에게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아내와는 사사건건 부딪치게 되고 언성을 높이는 부모 사이에서 데이빗과 앤(노엘 케이트 조)은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 위기의 가족에게 할머니 순자(윤여정)가 찾아옵니다.

영화의 배경은 1970년대로 한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면 평생 다시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은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왕래가 힘들었던 시절, 평생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엄마 순자를 만난 모니카는 데이빗과 앤의 엄마가 아닌 딸이 되어 엄마를 안아줍니다. 작은 몸으로 딸과 손주들을 먹이기 위해 커다란 짐가방 가득 고춧가루며 말린 멸치, 한약 따위를 챙겨온

할머니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도 바로 나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떠오르게 만들만큼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의 아슬아슬한 균열을 메워주는 순자는 할머니 같지 않은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쿠키 구울 줄 모르고 요리도 못하며 프로레슬링 경기를 즐겨보며 화투를 치죠. 데이빗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할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하러 나간 부모 대신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데이빗은 순자와 가까워지죠. 주변의 숲을 걷고 짧은 한국어와 엉망인 영어로 소통하는 두 사람은 나이와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가 됩니다. 순자는 데이빗에게 미나리도 알려줍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앗을 심으며 어디서나 잘 자라는 미나리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건강하게 해주는 ‘원더풀’한 음식이라고요. 그러나 성공적인 미나리 재배와 달리 제이콥의 농사는 실통치 않고 수확한 작물을 파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제이콥 대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느라 바쁜 모니카에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가족을 위해 일하지만 일하면서 아이들과 더 멀어지고 그 빈자리는 순자가 겨우 대신하고 있죠.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뿔뿔이 흩어지던 가족들은 마지막이 되어서 비로소 한데 뭉쳐집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가진 것을 모두 사고로 잃고 난 후 제이콥과 모니카, 아이들과 순자는 트레일러의 거실에 모여 잠을 잡니다. 앞서 더 이상 제이콥과 살 이유가 없어진 모니카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토록 매달리던 농사에서 모든 걸 잃은 제이콥은 절망해야 할 것 같지만 다행히 그들에게는 아직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잘 자라는 미나리도 있고요. 자포자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제이콥은 힘을 냅니다. 영화 내

내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고생한다고 믿었던 제이콥은 사실 가족이 있기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비극적인 사건이 끝나고 데이빗과 함께 순자가 심어놓은 미나리를 수확하는 그의 얼굴은 전에 없이 편안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아버지의 품은 데이빗에게 꼭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 가족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면 아직 다 잃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곁에 있거나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영화 데이트를 신청해보면 어떨까요? 그 시간을 영화 『미나리』와 함께 한다면 더욱 ‘원더풀’ 할 것 같습니다. **AF**



영화 『미나리』
메인 포스터



글쓴이

영화에 대해 쓰고 말합니다. 오늘도 영화 속의 멋진 여성 캐릭터와 그보다 더 멋진 주위의 여성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TREN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레고의 착한 놀이가 세상을 바꾼다



폴란드 레고 수업 교재 일부

“나이를 먹기 때문에 놀이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그만두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 것이다”라는 명언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버나드 쇼가 한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릴 때 예술가였고 건축가였죠. 벽에 낙서하듯 그림을 그리고 상상 속의 세상을 브릭으로 만들며 놀았습니다.

우리에게 건축가 놀이와 예술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 브랜드가 바로 레고입니다. 레고의 철학은 놀이입니다. “놀이가 호기심을 만들고 호기심은 창의성 풍부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라고 레고는 믿는 것이죠.

최근 레고는 아이들에게 창의성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감까지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창의력 놀이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 놀이로 진화하려는 레고의 환경 캠페인 사례입니다.

유럽 국가의 대부분은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에너지의 79.9%를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대기오염에 지친 시민들은 환경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교육부는 화석 연료를 줄일 계획이 없으며, 환경 교육 프로그램 역시 학교에 개설할 예정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일을 계기로 폴란드의 레고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레고를 단순히 놀이로만 사용하지 않고 환경을 가르치는 교육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레고는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수업을 온라인으로 개설했습니다. 학교가 하지 못한 일에 도전한 것이죠.



자동차를 분해해 만든 자전거



트럭을 분해해 만든 풍차

먼저 비대면 수업 교재가 필요했습니다. 이 교재는 레고 브릭으로 자동차, 기차, 비행기, 빌딩, 공장 등을 조립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들을 실제로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량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완성된 빌딩, 자동차 등을 분해해서 나온 개별 브릭을 재조립하여 전기 자동차, 자전거, 스쿠터, 풍차 등 친환경 물건들을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이들이 자동차와 탄광을 분해해서 자전거와 풍차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가 줄어들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구의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 비대면 수업의 이름은 ‘그린 인스트럭션 (Green Instruction)’입니다. 관련 수업 사이트를 개설해 선생님과 학생들은 디지털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과학 선생님들만 이용했지만 시작한 지 2주 만에 교재 200만 건이 다운로드 되었고, 한 달여 만에 전국의 700여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장 인기 있는 비

대면 수업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전기 열차는 비행기보다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95% 감소되며, 전기 스쿠터는 자동차보다 39% 줄어드는 등의 탄소 감소 효과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932년에 태어난 레고는 1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전의 히트 상품을 꾸준히 선보였습니다. 정교함의 절정이라고 평가받는 ‘발렌타인 꽃’과 ‘로마 콜로세움’은 어른들의 가슴까지 설레게 한 걸작들입니다.

하지만 ‘그린 인스트럭션’의 성공은 그동안 레고의 브랜드 방향성에 또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여 년 된 브랜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공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오래도록 사랑받는 브랜드가 걸어가야 할 다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AF



글쓴이

홍보회사 플랜얼라이언스 대표. 국방부 장병사랑 캠페인, 인천공항 브랜딩 캠페인, 아디다스, SKT 등 국내외 브랜드의 통합 캠페인을 20년간 진행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공군인의 편지

글 | 준위 이종석(군수사령부 제82항공정비창 품질보증과)

역경을 박차고 힘찬 날갯짓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미천 뱃나무들은 곧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듯 한껏 부푼 모습이고, 상춘의 이목을 모으는 3월의 끝자락에 서서, 외로이 병실을 지키고 있을 아들 생각에 아버지는 새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감출 수가 없구나.
내가 입대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가는구나. 스물여섯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입대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쓸쓸한 기운도 느꼈단다.
그렇게 교육, 훈련을 무사히 받고, 배치받은 곳이 강원도의 한 전방부대이더구나.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늘 군복을 보며 자라 그런지 소속부대 환경에 재빠르게 적응하며 군 복무에 충실히 임하는 줄만 알고 참으로 대견하다 생각했는데 하늘의 시샘인지 그날의 낮선 한 통의 전화는 아버지를 쓰러뜨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응급후송 헬기로 수도병원에 도착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너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엄마와 아버지는 오직 너만을 생각하며 마음 졸였단다. 현재 이만큼 회복되고 있음에 수도병원의 군의관님, 간호 장교님 등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신속하게 조치한 소속부대의 간부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구나.

준우야,
접합수술 후 피부이식수술까지
받느라 무척이나 힘들었

지? 엄마, 아버지 마음이야 한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도리도 없이 유약한, 한 사람의 부모가 되어 애타는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너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하며 보내고 있단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전화통화가 가능하여 직접 너의 음성을 듣고, 너와 소통할 수 있어서 그나마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모든 수술이 다 잘 되었다 하니 이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자꾸나. 이제는 완전히 회복하는 일만 남은 것 같으니 회복과 재활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리하여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보란 듯이 병실 문을 당당히 나설 때 비로소 너의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대한민국 육군 일병 이준우가 될 것이라고 아버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힘든 고생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 내주어 아버지로서 참으로 고맙구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퇴원하면 그 시간부터는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주어진 임무에 공병 병사로서 충실히 임하길 바란다. 역경을 박차고 일어나 너의 인생을 살찌우는 힘찬 날갯짓을 보고 싶구나.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고 상황이 허락되어 부모, 자식 간 재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줄인다. 끝으로 소속부대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평안을 진심으로 바란다. **AF**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터넷 : cjhminam1210@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책읽는 공군

글 | 일병 백민근(항공안전단)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 미숙함의 특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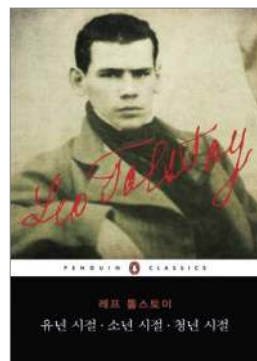
‘미숙함’이 되려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미숙한 시절인 어린 시절은, 개인마다 체감하는 기간도 다르고 그 기간동안 느낀 경험도 매우 다르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 시절의 기억을 추억하고, 언제나 기분 좋은 간지러움을 느끼곤 한다.

본 책은 톨스토이의 문단 데뷔작이자 자전적 소설로, 우리가 추억하는 어린시절 모습들의 보편성을 통해 시공간을 뛰어넘는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주인공 ‘니콜렌카 이르테니예프’는 19세기를 살고있는 러시아 아이이다. 1인칭으로 서술된 니콜렌카의 시선을 통해, 독자는 그의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의 성장과정을 따라가게 된다. 니콜렌카는 강압적인 교사의 지시에 마음속으로 토를 달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 끼고 싶어 대화 주제를 고민하는 등 유년시절 우리의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는 어머니의 임종과 이에 따른 집 분위기의 변화, 그리고 대학시험을 준비하게 되며 스스로 느끼기에 소년시절로 접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혼란과 현실과의 타협 등을 피부로 느끼며 니콜렌카는 결국 대학에 들어가고, 청년시절을 맞이한다.

한편 니콜렌카는 자신이 유아에서 소년이 되었음을 정신적으로 자각한 계기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경험이 있는가? ... 이 세상에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우리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소년 시절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서술은 매우 당연한 사실을 곱씹게 하지만, 마치 훈련소에 막 입소한, 또는 자대에 막 배치

된 신병들의 마음과도 같다. 신병들의 경우에는 소년 시절의 시작이 아니라, 군인 시절의 시작을 자각하는 순간이 될 터이다. 모든 것이 낯설고, 미숙하다. 분명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해낼 수 있는 일인데, 손과 발은 따로 놀며 말썽을 부린다. 또한 적응을 위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살핀다. 이때 우리의 내면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럽다. 마치 유년 시절이나 소년 시절 때의 모습이 된 느낌이다.

청년인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 느낌이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청년이라고 해서 완전하랴. 니콜렌카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순간은 분명 훗날 우리의 추억의 대상이 된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부끄러움에 이어서 흐뭇한 감정을 느꼈다. 부끄러움은 바보 같던 과거의 내 모습을 주인공이 떠올리게 해주어서 느꼈다. 그리고 흐뭇함은, 그렇게 모두가 성장하기에 지금의 나도 있다는 생각에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낭비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 있다. 따라서 더 성숙해진 미래의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흐뭇하게 여길 때를 기다리려 한다. AF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레프 톨스토이 지음
펍클 클래식 코리아 펴냄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윤기준(공군본부 정신전력과)

그림 | 강은정 작가

존중의 마음을 가질 때



영화 <인턴>에는 아주 특별한 직원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온라인 패션 회사에 시니어 인턴으로 입사한 70세 벤 휘태커입니다. 벤은 CEO인 줄스의 비서로 배정되지만, 30대 젊은 나이로 경영자가 된 줄스는 벤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끝날 인연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30살이나 어린 자기를 존중해주는 모습과 수십 년 직장생활의 노하우로 자신에게 조언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점차 줄스는 벤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렇게 인생 멘토이자, 동료, 그리고 친구로서 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꼭 영화 속 얘기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회에서 벤과 같은 멘토들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직책이 달라도 나보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멘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들의 지혜를 표지판 삼아 내게 처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이 없다면 연륜 있는 사람들을 그저 ‘아저씨’나 ‘아줌마’ 나아가 ‘꼰대’로 여기겠지만, 존중이 있다면 그제야 그들을 멘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니어에 대한 존중은 되려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얻는 ‘성공행 티켓’인 것입니다.





군대는 다양한 계급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입니다. 서로 경험한 환경이 다르지만 그만큼 팀워크를 가지면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계급과 신분에만 관심을 가진 채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기도 합니다. 결국 다양한 멘토들을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도 조직도 발전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든, 국가적 차원에서든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병, 부사관, 장교 등 신분 구분 없이 상대방의 능력과 지식을 존중할 때 팀워크가 빛을 발합니다. 군은 특히 경험과 연륜, 전문성이 중요한 동시에 패기, 용기, 체력과 창의성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배우는 조직문화를 마련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한 점을 채우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나보다 더 잘 아는 ‘인생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계급이 나보다 낮아도,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은 모두 ‘인생 선배’입니다.

공군인 여러분! 전우애는 존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전우를 존중할 때 전우도 나에게 조언과 가르침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우애가 있을 때 팀워크는 더 공고해집니다. 즉 전우에 대한 존중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 군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AF**





5 1 5